

침묵에 가려진 아름다운 '父情' 을 만나다

광주 서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진심 아버지를 읽다'展



1 결혼하는 딸을 위해 아버지가 손수 제작한 혼수가구 2 김용석 작 산(山) 3 막내 딸과 손주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한 아버지가 임종 전까지 만들었던 수제비누의 원료와 도구들 4 중동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가족들을 생각하며 만든 조개거울.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마음 깊이 울림이 있는 전시회는 처음이다." (최유정, 50대)
 "눈물이 계속 흘러 마스크가 축축해졌다. 몰랐던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윤성민, 10대)
 "아버지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다." (홍예민, 20대)
 "바쁘게 살았던 시간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에 위로를 받고 간다." (이병철, 50대)

관람객 13만명 울린 감동 전시, 빛고을 광주 상륙 2월 23일 다섯 번째 개관... 'N차 관람' 열풍 기대

감성을 자극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재발견하게 한다.

한 미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전시를 보았는데 오늘 너무 큰 것을 본 것 같다"며 "후세에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전시로 남아 (이 전시가) 전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가 지망생 김세미 씨는 "아버지에 관해 많이 생각나게 된 전시라 가슴이 먹먹하다. 살면서 오늘처럼 울어본 게 언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호규 씨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전시다. 앞만 보고 살았던 내 마음에 사랑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포항에 사는 한 노신사는 아버지전 내용이 실린 연론지를 보고 서울까지 먼 길을 찾아왔다. 그는 "부모님의 정(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전시회를 왔다가 답을 찾았다"며 "전시회가 너무 뜻밖에 선물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주 전시장 전시관 별 테마

구분	작품 사진	테마 명	내용
1관		"아버지 왔다"	배냇짓, 용알이, 걸음마... 자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아버지에게는 가슴 벅찬 기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와 행복했던 추억들이 펼쳐집니다.
2관		"나는 됐다"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가족을 위해 고단한 나날을 묵묵히 견뎌온 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3관		"..."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삶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을 마주합니다.
4관		"아버란 그런 거지"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끝없는 가족 사랑이 그려집니다.
5관		"잃은 자를 찾아 왔노라"	인류의 고전, 성경에도 자녀 향한 깊은 부성애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 숭고한 사랑을 발견해봅니다.

행사를 주최한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인 봉사활동과 다양한 문화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아버지전도 지역민 정서 함양과 가족애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전시장을 방문한 경기도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초등, 중등, 대학, 전 과정을 통해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는 이야기 같다"며 "너무 참신하고 자랑스러운 교육, 체험의 장"이라고 아버지전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되짚었다.

- '진심, 아버지를 읽다'展 관람 후기 중

"얼마 뒤, 등굣길에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야윈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휘적휘적 걸으시는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도시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탄광의 가장 깊은 곳인 막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집에 보리쌀조차 떨어진 날에는 종종 굶고 일하셨다는 것을요."

- '진심 아버지를 읽다'展 작품 중에서

자식들은 아버지의 땀방울이 속울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는 일도 그렇다.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삶을 조명하는 일은, 가족애 회복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따뜻한 부성애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가족의 정이 메마른 사회에 단비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 주최, ㈜멜기세덱출판사 주관으로 열리는 '진심, 아버지를 읽다'展(부제: 묵묵한 사랑에 대하여·이하 아버지전)이 그것이다.

으로 알려진 권이중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기증한 개인 소장품도 볼 수 있다. 주 전시장 밖에 설치된 부대 행사장에는 '진심우체국', '통계로 보는 진심', '북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다. 행사장에 비치된 편지지나 엽서에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어 '진심우체국' 우체통에 넣으면, 주최 측에서 무료로 전달해준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지친 일상에 여유를 가지며 가족이나 지인 간에 소원했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다. 북카페에서 마음에 따뜻해지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감성을 채우는 건 덩이다.

N차 관람 증가... '감동 전시' 호평

현재 아버지전에 다녀간 관람객 사이에서 'N차 관람(반복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전을 보고 감동한 관람객이 지인을 다시 데려와 관람하는 일이 늘고 있다. 현재 창원외곽?의정부남양 하나님의 교회에서 개관 중인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을 교차 관람하는 일도 빈번하다. 아버지전이 관람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는 이유는 전시회가 가진 콘텐츠의 힘이 크다. 전시장 내부 동선에 따라 섬세하게 배치된 감성적인 사연들이 관람객의

아버지전이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진한 사랑으로 지친 현대인들을 보듬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장에서 아버지들은 오롯이 주인공이 되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인생을 보상받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가족 사랑의 장이 될 전망이다. 아버지전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전시 지역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관람은 무료. 자세한 관람 일정은 홈페이지(thankfath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738-5999, 062-376-1925(광주 전시장)

- ▶ 진심 아버지를 읽다展 & 하나님의 교회 주요 사이트
- 1) '진심, 아버지를 읽다'展 홈페이지 thankfather.org
- 2) '진심, 아버지를 읽다'展 소개 영상 thankfather.org/video_post/father-heart-video-full
- 3)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atv.org
- 4) 하나님의 교회 미디어캐스트 watvmedia.org
- 5) 하나님의 교회 지식 사전 churchofgod.wiki

아버지 일상 언어로 풀이된 5개 테마

'진심 아버지를 읽다'展의 제목에서 '읽다'의 표현은 '읽다(read)'와 '이해하다(understand)'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전시품을 보고 읽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면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심까지 헤아려 가족애를 도담게 하길 바라는 마음을 제목에 녹였다. 주 전시장은 170~180여 점의 글과 사진, 소품 등으로 채워져 있다. 작품들은 시인 나태주, 정호승, 하정호, 만화가 이현세 등 기성 작가의 글과 멜기세덱출판사에 투고된 독자들의 사연과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작품 속에는 아버지와 가족 간의 애뜻한 사연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전시장에 설치된 5개 테마관의 명칭은, 아버지들이 평소 사용하는 간결한 일상어로 꾸며졌다. 1관은 "아버지 왔다", 2관은 "나는 됐다", 3관은 "...", 4관은 "아버란 그런 거지", 5관은 "잃은 자를 찾아 왔노라"이다.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대문에는 '김영수(金永秀)'라는 문패가 달려 있다. 김영수라는 이름은 해방동이 세대에 가장 흔했던 이름으로 평범한 아버지를 의미한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족의 가장 눈부신 순간마다 늘 조연을 자청해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시장의 작품 속에는 가족을 위해 남몰래 희생한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 파독 광부 파견(1963), 베트남전 참전(1964-1973), 중동 건설 붐(1970-1980년대), 외환위기(1997) 등 굵직한 시대사를 관통한 아버지들의 이야기,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가 거사 이틀 전 자녀에게 남긴 편지 등을 만날 수 있다.

독자들이 소중히 보관해 오던 아버지와 추억이 서린 유품도 볼 수 있다. 막내딸과 손주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임종 전까지 수제 비누를 만든 한 아버지의 사연은 관람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영화 <국제시장>의 실제 주인공